

The LEET BIBLE

2027

변호사 사례형문제 집필

오르지 않는 LEET 점수를 구원해 줄
단 하나의 교과서, 리트바이블



PRACTICE BOOK #1

대응형 문제 집중연습 (기본점수 확보 훈련)



PRACTICE BOOK

제목	The LEET BIBLE 2027 Practice Book #1 대응형 문제
발행일	2025년 9월 18일 초판 1쇄
Version	v2027-1.10
지은이	사례형문제
편집인	정태환
펴낸이	정태환
펴낸곳	어반컬처랩 주식회사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91 8층 A8924
홈페이지	https://leetbible.com
전화	070-4138-2100
정가	79,800원
ISBN	979-11-994933-1-5(15360)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곳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이 자료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작성된 모든 내용의 권리는 작성자에게 있으며, 작성자의 동의 없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본 자료의 일부 혹은 전체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배포하거나 2차적 저작물로 재편집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무단 복제/배포/수정은 엄금하며, 본 교재의 저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 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지 아니하다.

※ 저작권법 제136조(벌칙)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The LEET BIBLE Practice Book 2027 서문

The LEET BIBLE이 LEET를 바라보는 방향성

출제자의 인적 자원 POOL이 비슷하고 평가하려는 능력과 방향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The LEET BIBLE은 **법학적성시험(LEET)**이 수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패러다임을 가진 시험**이라는 **전제하에 접근**합니다. 이는 두 시험이 실전에서 요구하는 태도와 학습 전략이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수험생이 수능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LEET에서는 난항을 겪습니다. 만약 두 시험의 고득점 전략이 동일했다면, LEET 준비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험생이 LEET에서 좌절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학습해야 하는지를 탐구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책의 핵심 목표입니다.

수능이 정해진 학습 범위 안에서 성실한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시험이라면, LEET는 **법조인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잠재력을 평가하는 적성 중심의 시험**입니다. 따라서 LEET가 요구하는 사고 능력을 이해하고, 이를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우수한 성적을 얻을 수 있으므로 기존의 대다수의 시험과 준비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많은 수험생이 LEET를 자신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시험이라고 간주하고 과거 성공했던 학습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경향, 즉 휴리스틱(Huristic)에 빠집니다. LEET라는 시험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성공의 시작점이 됩니다. 단순히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성과를 얻기 어렵고, LEET가 요구하는 사고능력을 개발하는 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개념이나 원리의 이해가 아니라, “이해는 했지만 왜 적용이 어려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가?”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LEET 학습의 본질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LEET 교육 시장에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도 명확한 훈련 방법과 방향성을 제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The LEET BIBLE은 바로 이 지점에 주목했습니다. 단순한 개념 이해나 문제 풀이 요령을 넘어서, “어떻게 사고 과정을 전환할 것인가? 이렇게 전환된 사고를 실전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 것

인가? 그리고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한가?”와 같은 **실천적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The LEET BIBLE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단순한 문제 풀이 전략을 넘어, **수험생이 실제로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이를 실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책의 취지입니다.

Practice Book 교재는 어떤 교재인가

지난 Principle (상), (하)권을 거쳐오시면서 배우신 The LEET BIBLE의 LEET 공략법은 아직 여러분 것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LEET는 철저히 실전 중심의 시험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LEET에 대한 접근방법을 알고 있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문제풀이에 적용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고, 아는 것을 하는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반복훈련’**입니다.

The LEET BIBLE의 Practice Book은 이런 지점을 겨냥해서 만든 커리큘럼입니다. 2027학년도 버전에서 더 커리큘럼이 풍부해진 Practice Book은, 대략적으로 8년 전에서 3년 전의 기출문제, 쉽게 말씀드리면 2027학년도인 본 교재 기준 **2017학년도부터 2023학년도의 7개년의 기출문제 대부분을 유형별로 쪼개서 집중적으로 문제풀이에 적용시켜보는 교재**입니다. 이로써 Principle (상), (하) + Practice Book 6종의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2017~2023학년도의 거의 모든 기출문제를 The LEET BIBLE 방식으로 풀이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각 세부 교재별로 **특정 유형의 문제를 어떻게 공략하는지에 대한 방법과, 필수 사전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점**은 **덤**입니다.

이 과정은 철저히 ‘훈련’을 위한 과정이고, 비슷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게 됩니다. 지루할 수도 있고, 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배우셨던 내용을 기출문제에 실제로 적용시켜 보고, 그 즉시 The LEET BIBLE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는지를 확인한 뒤 **여러분의 사고과정과 비교해보시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지점을 어려워하고, 어떤 실수를 반복하는지를 찾아내 그것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LEET의 기본 실력을 다질 수 있게 됩니다.

본 Practice Book을 통해, 여러분께서 그동안 배워오셨던 LEET 접근방법을 몸에 착 달라붙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자 변호사 ‘사례형문제’

The LEET BIBLE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

The LEET BIBLE에서 LEET를 다루는 방식은 철저히 “실전 중심적”입니다. 후술하겠지만, LEET라는 시험이 수험자의 지식수준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니만큼, 본 교재는 원리서이지만 흔히 과목 교과서에서 볼 법한 포맷과는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1 LEET Tips

LEET TIPS

The LEET BIBLE을 통해 어떻게 LEET 고득점을 달성할 수 있는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섹션으로, 본문 중간중간에서 각 파트의 핵심적인 내용을 별도로 정리해서 제시해 드리는 파트입니다. 암기 일변도의 개념 정리에 머물지 않고 LEET 시험을 구성하는 각 문제 유형별 실전 대응법 또는 문제 풀이 방법론을 제시하는 의견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습하실 때나 특정 유형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교재를 빠르게 넘기시면서 Tips 부분만 잘 살펴보셔도 문제 대응을 위한 길잡이로서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2 Review Note

Review Note

✓ 풀어볼 문제

2014학년도 추리논증 2번

The LEET BIBLE은 단순히 문제를 풀이하거나 사후적으로 해설하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정답을 가려낼 것인지에 집중합니다. 이를 위해 본서는 Review Note라는 양식을 활용하여, 수험생 스스로 문제 접근 방식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Review Note 양식은 홈페이지 ‘학습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본 교재에 선별된 모든 문제에는 Review Note가 첨부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실제 LEET를 준

비한 선배 수험생들이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이미 완성된 LEET 고수가 적은 해설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서 학습했던 선배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더욱 현실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Review Note를 통해 대부분의 수험생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자신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는구나”, “이 부분이 공통적으로 어렵구나”를 넘어,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남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사고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The LEET BIBLE에서 제시하는 정석적인 방법으로 훈련하고 싶다면, 문제를 풀 때마다 직접 Review Note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Practice Book의 단계에서는 정답 그 자체보다 정답을 도출하기까지의 사고 과정과 대응 방식이 본서에서 소개하는 실전적 LEET 풀이법을 따랐는지를 되짚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신의 Review Note를 교재의 예시와 비교하며 검토하면, 한 문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실력을 체계적으로 쌓아갈 수 있습니다.

CONTENTS

CHAPTER

01 | 대응형 문제 접근 설명서 8

1. 대응형 문제의 본질과 중요성 10
2. 대응형 문제 해결의 핵심 원리 12
3. 밑줄 활용을 전략적으로 접근하자 16
4. 대응형 문제 유형별 접근 전략 18
5. 대응형 문제 : LEET 기본점수 획득을 위한 출발점 20

CHAPTER

02 | 추리논증 대응형 문제(기본형) 22

1. 추리논증 대응형 문제(기본형) 개요 24
2. 추리논증 대응형 문제(기본형) 기출문제 분석 및 풀이 27

CHAPTER

03 | 추리논증 대응형 문제(심화형) 217

1. 추리논증 대응형 문제(심화형) 개요 219
2. 추리논증 대응형 문제(심화형) 기출문제 분석 및 풀이 222

CHAPTER

04 | 언어이해 대응형 문제 375

1. 언어이해 대응형 문제 기출문제 분석 및 풀이 377

정답지 447

“

대응형 문제는,
말 그대로 제시된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를 문제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제 1 장

대응형 접근 설명서

The LEET BIBLE

1 대응형 문제의 본질과 중요성

Principle 교재에서 자세히 다루었던 대응형 문제는 LEET에서 가장 빈출되는 문제 유형으로, “문제 또는 제시문에서 표현된 형식적 변수를 그대로 활용하여 연결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이는 주어진 지문이나 제시문의 내용을 이차적으로 포섭하거나 재가공하는 과정 없이, 문언 그대로 받아들여 활용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LEET가 측정하고자 하는 핵심 영역인 대응형 문제는, 말 그대로 제시된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를 문제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먼저, 대응형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시험 문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전체 문제의 약 70~8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는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두 영역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고득점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응형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대응형 문제에서의 시간 절약이 추후 함수형 문제의 정답률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대응형 문제에서 시간을 단축하지 못한다면 시험 전체의 시간 관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문제도 시간 부족으로 놓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대응형 문제를 정복하는 것이 LEET의 기본점수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첫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학습하셔야 할 방향은, 먼저 대응형 문제를 '당연히' 맞히는 것이고, 나아가 단순 정답을 찾는 것을 넘어서 문제 풀이 속도를 높여 짧은 시간 내에 정답을 제대로 고를 수 있도록 시간 단축에 주안점을 두고 연습하셔야 합니다.

왜 '대응형 문제'를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가?

설명만 봐서는 전혀 어렵지 않은 대응형 문제. 왜 The LEET BIBLE에서는 계속해서 '있는 그대로 활용하라'라는 점을 강조하는 걸까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LEET는 매우 불친절한 시험이므로 실제 시험장에서는 각 문제가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LEET 공식 출제 가이드라인에서도 대응형 문제 등의 유형을 별도로 구분해서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를 '대응형 문제'로 분류할지, 그리고 이 대응형 문제를 어떻게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할 것인지 사전 훈련이 필요합니다.

대응형으로 풀면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대응형 문제는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문제인 만큼, 이 지점을 간파하고 푸는 경쟁자들은 이미 다 풀고 빠르게 넘어간 상태인데, 여러분만 문제의 핵심을 잡지 못하고 시간을 소모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한 방식으로 회귀하려는 휴리스틱(Heuristic)이라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선 The LEET BIBLE에서 말씀드렸던 함정 중 하나인 "일상어의 간과" 현상 또한 이에 기인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한국어로 적혀있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응시했던 시험들의 대부분이 문제와 제시문을 "읽고 이해"한 뒤 이를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인 경우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자꾸 제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내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회귀합니다.

LEET는 이런 식으로 모든 내용을 이해하려는 수험생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로서 난해하고 생소한 제시문으로 문제를 출제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대응형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고, 실제로도 그런 수험생들의 습관을 과거 몇 년간 지켜봐 왔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응형 문제는 대응형 문제답게 푸는 것이 LEET 공략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의 기출문제를 통해 어떤 문제가 대응형 문제인지 정확하게 각인시키고, 나아가 최대한 정확하고

CHAPTER

02

추리논증 대응형 문제 (기본형)



The
LEET
BIBLE™

“

대응형 문제 기본형을 잡으면
LEET 추리논증에서
내 점수와 멘탈의 근간이 되는
기본점수를 단단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1. 다음 글에 대한 평가로 옳지 않은 것은?

X국 헌법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이는 정당존립의 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령으로 해산되는 일반 결사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해산 여부가 결정되도록 한 것이다. 강제 해산의 대상이 되는 정당은 정당으로서의 등록을 완료한 기성(既成) 정당에 한한다. 정당이 설립한 연구소와 같은 방계조직 등은 일반 결사에 속할 뿐이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신고를 하였으나 아직 정당으로서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창당준비위원회를 기성 정당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A : 창당준비위원회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일반 결사일 뿐이다. 그 해산 여부는 정당 해산의 헌법상 사유와 절차가 요구되지 않고 일반 결사의 해산 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

B : 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에 준하는 것이다. 그 해산 여부는 기성 정당과 같이 헌법상의 사유와 절차가 요구된다.

C : 정당설립의 실질적 요건을 기준으로, 아직 이를 갖추지 못한 창당준비위원회는 일반 결사와 동일하게 보고, 이미 이를 완비하였지만 현재 등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① 창당준비위원회는 등록기간 안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X국 ‘정당법’에 따라 특별한 절차 없이 자동 소멸된다는 주장이 옳다면, 이는 A의 설득력을 높인다.
- ② 집권 여당과 정부가 그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지 않는 반대당의 성립을 등록 이전에 손쉽게 봉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옳다면, 이는 A의 설득력을 낮춘다.
- ③ 창당준비위원회는 앞으로 설립될 정당의 주요 당헌과 당규를 실질적으로 입안한다는 주장이 옳다면, 이는 B의 설득력을 높인다.
- ④ 정당설립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창당준비위원회에게 정당등록은 지극히 통과의례의 과정이라는 주장이 옳다면, 이는 C의 설득력을 낮춘다.
- ⑤ 정당설립의 실질적 요건을 강화할수록 C는 A와 비슷한 결론을 내릴 것이다.

전형적인 대응형 문제로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역시나 헛갈리는 선지의 경우, 차원의 구획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바가 어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보인지 확정 짓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 선지가 있으시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X국 헌법에 따르면 **[규정]**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이는 정당존립의 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령으로** 해산되는 **일반 결사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해산 여부가 결정되도록 한 것이다.** 강제 해산의 대상이 되는 정당은 정당으로서의 등록을 완료한 기성(既成) 정당에 한한다. 정당이 설립한 연구소와 같은 방계조직 등은 일반 결사에 속할 뿐이다. **[쟁점]**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신고를 하였으나 아직 정당으로서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창당준비위원회를 기성 정당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 A : 창당준비위원회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일반 결사일 뿐이다. 그 해산 여부는 정당 해산의 헌법상 사유와 절차가 요구되지 않고 일반 결사의 해산 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
- B : 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에 준하는 것이다. 그 해산 여부는 기성 정당과 같이 헌법상의 사유와 절차가 요구된다.
- C : 정당설립의 실질적 요건을 기준으로, 아직 이를 갖추지 못한 창당준비위원회는 일반 결사와 동일하게 보고, 이미 이를 완비하였지만 현재 등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X국 헌법의 규정 자체가 대응 지점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해야겠습니다. 각 요건들은 암기의 대상이 아니라 추후의 재독해 대상입니다.

X국 헌법 규정	
대상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상황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주체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심판주체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X국 헌법의 정당 해산 규정을 통하여, ‘정당’차원과 ‘일반 결사’ 차원이 구획됩니다. 이때 해산 대상이 되는 정당의 범위는 A의 B 형식을 통하여 “정당으로서 등록을 완료한 기성 정당”에 한정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일반 결사	정당
법령으로 해산 가능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해산 여부 결정 (특별한 보호)

후속적으로 제시되는 견해들의 경우, 상위 차원의 쟁점을 정확히 인지해야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창당신고를 하였으나, 아직 정당으로서의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창당준비위원회”와 “기성정당”간의 관계가 문제화되는 것입니다. 둘이 동일하다고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입니다.

[쟁점]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신고를 하였으나 아직 정당으로서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창당준비위원회를 기성 정당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A : 창당준비위원회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일반 결사일 뿐이다(정당 차원이 아니다). 그 해산 여부는 정당 해산의 헌법상 사유와 절차가 요구되지 않고 일반 결사의 해산 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

B : 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에 준하는 것이다(정당 차원이다). 그 해산 여부는 기성 정당과 같이 헌법상의 사유와 절차가 요구된다.

C : 정당설립의 실질적 요건을 기준으로, 아직 이를 갖추지 못한 창당준비위원회는 일반 결사와 동일하게 보고, 이미 이를 완비하였지만 현재 등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차등적 접근)**

각 견해에 어려운 부분은 딱히 없습니다. A는 일반 결사 차원으로 보자는 것이고 B는 정당 차원으로, C는 차등적 접근으로서, 정당설립의 실질적 요건이 미비한 경우, 일반 결사 차원으로, 정당설립의 실질적 요건을 완비한 경우, 정당 차원으로 구획하자고 합니다. 선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① 창당준비위원회는 등록기간 안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X국 ‘정당법’에 따라 특별한 절차 없이 자동 소멸된다는 주장이 옳다면, 이는 A의 설득력을 높인다.

역시나 차원의 구획이 핵심이었습니다. ‘정당법’이라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정보가 제시되었지만, 1번 선지가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불필요하다는 의미이며, “법령”으로 해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1번 선지의 상황은 일반 결사 차원으로 창당준비위원회를 구획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번은 맞는 선지입니다.

② 집권 여당과 정부가 그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지 않는 반대당의 성립을 등록 이전에 손쉽게 봉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옳다면, 이는 A의 설득력을 낮춘다.

2번 선지를 어려워하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관계를 선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럴 때 항상 A 차원과 ~A차원의 구획이 유의미할 수 있습니다.

A의 입장에 따르면 창당준비위원회는 일반 결사이므로 일반 법령에 의해 해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민주적인 반대 정당의 창당과정도 법령을 통해 쉽게 방해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A의 입장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은 결국 일반 결사 차원으로의 해산 방식이 옳지 않다는 주장으로 귀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A의 설득력을 약화시키는 요소입니다. 2번은 옳은 선지였습니다.

③ 창당준비위원회는 앞으로 설립될 정당의 주요 당헌과 당규를 실질적으로 입안한다는 주장이 옳다면, 이는 B의 설득력을 높인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구체적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사례들의 의미를 파악할 때 결국 “차원의 구획”이 유의미할 수 있습니다.

당헌과 당규를 실질적으로 입안한다는 정보는 결국, 창당준비위원회는 이미 정당으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해당 상황은 창당준비위원회를 정당과 같은 차원으로 구획하라는 의미입니다.

B의 입장은 창당준비위원회를 정당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차원입니다. 따라서, 이는 B의 주장을 강화하는 팩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평가는 옳습니다. 3번도 옳은 선지였습니다.

④ 정당설립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창당준비위원회에게 정당등록은 지극히 통과의례의 과정이라는 주장이 옳다면, 이는 C의 설득력을 낮춘다.

3번과 동일한 사고 과정이 쓰였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구체적 사례로서의 창당준비위원회에게 정당등록은 단순한 통과의례에 불과하다는 팩트는 결국, 창당준비위원회를 정당차원으로 구획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C의 입장은 정당설립의 실질적 요건을 기준으로, 이를 갖추지 못한 창당준비위원회는 일반 결사로, 이미 완비한 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C는 실질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창당준비위원회의 법적 지위 판단 기준으로 중시합니다. 만약 실질적 요건을 갖춘 창당준비위원회에게 등록이 단순한 통과의례라면, 이는 오히려 실질적 요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C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4번은 틀렸습니다.

⑤ 정당설립의 실질적 요건을 강화할수록 / C는 A와 비슷한 결론을 내릴 것이다.

5번 선지 역시 수험생께서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선지였습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함수형 사고가 조금 쓰였습니다. 해당 선지는 C와 A 사이의 관계를 짓고 있으므로 그 관계를 직접 확정 지어야 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C는 정당설립의 실질적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창당준비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판단합니다. 만약 정당설립의 실질적 요건이 강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더 많은 창당준비위원회가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범주에 속하게 되어 일반 결사로 분류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모든 창당준비위원회를 일반 결사로 보는 A의 결론과 유사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C와 A 간 비슷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은 옳은 선지입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Review Note

✓풀어볼 문제

2017학년도 추리논증 1번

POINT

▶ 농친 부분, 문제의 변하지 않는 정신, 내가 깨달은 것, 선생님이 말해준 포인트

- 차원의 구획(정당 차원 vs 일반 결사 차원)이 문제 해결의 핵심 열쇠임
- 정당의 목적/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 제소 가능
- 정당은 헌법재판소 심판으로만 해산 가능 (일반 결사는 법령으로 해산)
- 강제 해산 대상은 정당으로서 등록을 완료한 기성 정당에 한정

WRONG

▶ 처음 풀이의 사고과정이 어디서 왜 잘못됐는지 깨닫기, 교정해야 하는 구체적 부분

- 선지 ⑤에서 '정당설립의 실질적 요건 강화'가 C와 A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오답 가능.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해보면 판단 가능했음

CORRECT

▶ 올바른 풀이과정

	A : 창당준비위원회는 일반 결사에 불과 (일반 법령으로 해산 가능) B : 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에 준함 (헌법재판소 심판 필요) C : 실질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차등적 접근 필요	
1	① 창당준비위원회는 등록기간 내 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X국 '정당법'에 따라 특별 절차 없이 자동 소멸된다는 주장이 옳다면, 이는 A의 설득력을 높인다.	등록기간 내 등록신청 없이 자동 소멸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 심판 없이 법령으로 소멸됨을 의미 이는 창당준비위원회를 일반 결사로 보는 A의 견해와 일치 따라서 A의 설득력을 높임 선지 ①은 옳은 진술임
2	② 집권 여당과 정부가 그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지 않는 반대당의 성립을 등록 이전에 손쉽게 봉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옳다면, 이는 A의 설득력을 낮춘다.	A의 견해에 따르면 창당준비위원회는 일반 결사로서 일반 법령으로 해산 가능 이는 정부가 민주적인 반대 정당의 창당과정도 법령을 통해 쉽게 방해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 이러한 정치적 악용 가능성은 A의 입장에 문제점을 드러냄 따라서 A의 설득력을 낮춤 선지 ②는 옳은 진술임
3	③ 창당준비위원회는 앞으로 설립될 정당의 주요 당헌과 당규를 실질적으로 입안한다는 주장이 옳다면, 이는 B의 설득력을 높인다.	당헌과 당규를 실질적으로 입안한다는 것은 창당준비위원회가 이미 정당으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을 의미 이는 창당준비위원회를 정당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B의 견해와 일치 따라서 B의 설득력을 높임 선지 ③은 옳은 진술임
4	④ 정당설립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창당준비위원회에게 정당등록은 지극히 통과례의 과정이라는 주장이 옳다면, 이는 C의 설득력을 낮춘다.	C는 실질적 요건 충족 여부를 창당준비위원회의 법적 지위 판단 기준으로 중시 실질적 요건을 갖춘 창당준비위원회에게 등록이 단순한 통과례라면, 이는 실질적 요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C의 입장을 지지

		따라서 C의 설득력을 높이는 요소이지 낮추는 요소가 아님 선지 ④는 옳지 않은 진술임
5	⑤ 정당설립의 실질적 요건을 강화할수록 C는 A와 비슷한 결론을 내릴 것이다.	C는 실질적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창당준비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판단 실질적 요건이 강화되면 더 많은 창당준비위원회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해 일반 결사로 분류됨 이는 모든 창당준비위원회를 일반 결사로 보는 A의 결론과 유사해짐 따라서 C와 A는 비슷한 결론에 도달할 것임 선지 ⑤는 옳은 진술임